

신임이사 13명 추천 불교TV 이사회

불교TV(회장 성우)는 3월 10일 불교TV 4층 회의실에서 제 50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로 13명을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신임이사에는 성관(조계종 총무부장)·종광(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부과위원장)·도일(국성 성문사 주지)·성문(천안 성거사 주지)·홍법(양양 휴휴암 주지)·철우(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장)·도일(불현사 주지)·스님, 조재용(전 영풍산업대표이사), 김재복(태성비인택 대표이사), 구분홍(보스베이커리 대표), 김동덕(전 코리아랩 대표), 전인규(에비여 준장) 씨, 손경락 감사 등이다.

이로써 불교TV는 3월 30일 제 10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실상 이사선임을 확정 짓고 임기가 만료된 우관수 이사, 손기원 감사 등을 제외한 총 21명의 이사단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 53억 6천 8백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기자재 보수 및 매입(3억 7천), 운영비, 인건비, 디지털방송 준비비 등을 포함한 액수다.

한성희 기자

민주당 인터넷 공천 등록

개신교6 불교1 가톨릭1 順

김석오 종단협국장 입후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후보자 공천방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공천 방식은 새천년민주당의 인터넷을 통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다.

네티즌의 투표로 다득표자 1명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결정하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다양한 후보자들이 입후보했다.

3월 10일 마감한 입후보자는 총 22명. 이 중 개신교 6명, 가톨릭 1명 등 기독교인이 7명이 포함돼 있지만, 불교인은 단 1명뿐이다. 김석오(38)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이 주인공(www.win0415.net).

네티즌이 뽑는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전은 3월 29일 종료된다. 3월 18-19일 실시되는 1차 인터넷 투표를 거쳐 26-27일 진행되는 2차 투표에서 1위를 해야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박병영 기자

원자재 가격급등 불교용품 생산 비상

봉축행사때 연등 품귀 우려... 재사용 고려해야

공급량 전년대비 70% 그칠듯

고철·철근 등 일부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상승과 국내 수급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5월 봉축행사를 앞두고 불교용품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철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불교용품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원자재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아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름등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단가상의 이유로 국내 소비 전망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터라 원자재 파동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연등소비량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찬덕연등'의 경우, 일정량의 원자재를 미리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 생산량의 70%가량만을 생산할 계획이다. 사찰 수요만큼 연등을 생산해내려면 원자재를 더 구입하거나, 중국산 연등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찬덕연등 생산담당자는 "생산량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지만,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하몰의 하동규 과장은 "올해 일부 영세상권에서는 연등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사찰들이 올해 봉축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년엔 생산된 연등을 확보하거나 쓰던 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 수급문제와 관련, 3월 3일 고철·철근 등 2개 품목에 관해 수출을 제한하고 국제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요를 단속하는 등 원자재의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경연 기자 ipck@buddhapia.com

조계사 매달 '희망법회' 연다

청년회 주최, 20일 첫 실시

"내가 밝히는 작은 희망의 등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듭니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메시지 10명을 초청, 매달 한차례 '희망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될 이번 희망법회는 희망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20일 첫 번째 희망메시지는 병마로 고통 받는 투병환자들에게

자신의 신장과 간을 기증한 강필원(남·50) 씨. 이어 4월 17일에는 NGO 및 인권분야의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5월 15일에는 강한 도전정신의 산악인 박영석 씨, 6월 19일에는 환경분야의 자율(내원사) 산감스님 등이 희망메시지로서 나선다. 정우식 회장은 "희망법회는 우리 사회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찾아,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킬 힘을 찾는 시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 희망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735-3724 김은경 기자

통영환경연, 종회의원 대상 진정

미륵산 케이블카 관련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통영환경운동연합이 3월 4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발송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진정서에서 "최근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은 부지사용을 조건으로 통영시장에게 현찰 60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에 밝혀졌고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미륵산 개발 저지 시민 공동대표

로써의 본분을 헌신처럼 던진 모습은 속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처사"라며 강력 비난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사찰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계종의 연대 정책 사업이 한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대우를 이탈한다면 조계종 산하 수 많은 불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의 추상같은 일벌백계의 문책이 있어 미륵산을 수호하고 미륵성지를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원했다. 남동우 기자

北 개성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 5차분 전달

천태종 나누며나되기운동본부(총재 윤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3월 8일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6만 5천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방북단 10명(단장 무원)은 기와를

목탁소리

3월 들어 동국대 흥기삼 총장(4일)과 동국학원 이사장 현태 스님(9일)이 잇달아 교계 기자들을 만나 일산 불교병원 내내 3월 개원 의지를 밝혔다. 일정상 "벼간감"도 있고 "상당한 무리"도 있다는 전제를 달고서 말이다. 개원 준비에 "을인"해야 "사회"의 할 상황이 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관심은 '영안실'에 있는 듯하다. 총장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사장이 "재단 직영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견이야 다를 수 있지만 '찰떡궁합'을 과시해도 모자랄 판에 총장과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보이자 '도대체 영안실이 무엇이기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재정 지원이 적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재단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다시 학교(병원)로 돌려줌으로써 낮은 세율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을 때 다른 수익사업이나 학교 운영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에도 공감이가 간다.

그런데도 의혹이 쉬 가라앉지 않는 것은 '신뢰'의 문제인 듯 하다. 수익금이 100%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업체 선정이나 운영 과정이 투명해도 '뺨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금이 100%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업체 선정이나 운영 과정이 투명해도 '뺨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금이 100%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업체 선정이나 운영 과정이 투명해도 '뺨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권형진 기자

불교와 문학을 말한다

달마문예대학 1기 초급문예과정 개강



달마문예대학 고문 신경림(시인) 씨가 '우리생활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04년 서울 도심 사찰에서 열린 신경림, 소설가 김성동, 수필가 맹관자 씨 등이 문학의 보고인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생활 속의 문학으로 풀어내는 법을 소개했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주지 미명)는 3월 6일부터 '달마문예대학' 제1기 초급문예과정을 개강했다. 윤관반, 산문반으로 나뉘어 있는 초급문예과정은 올 5월 말까지 '우리 명사와 불교', '현대산문과 불교', '문학연수 및 사찰체험', '창작지도' 등의 강의로 꾸며진다.

군사독재의 서늘이 퍼졌던 시절, 그러나 낭만과 치기가 있었던 단. 이해도 잘 못하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영문판 <공산당 선언>을 줄줄 외기도 했다고 한다. 진보당 사건으로 선배들이 불뚝러가니가 수사대상과 별 관계도 없으면서 두려워 시골로 도망을 갔다고도 했다. 농사일을 도우며 '농무'를 썼지만 농촌이라고 할 수 있어도 농민이라고 하기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한다. '부끄러움과 반성의 미학'이다.

6일 개강식, 종립 스님(달마사 회주,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이 멋쩍은 듯 슬쩍 웃으며 인사말을 한다.

'우리 명사와 불교', '창작지도' 등 강의

신경림 씨가 밝히는 문학관은 첫째,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둘째, 시

달마사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요지의 인사말이지만 '분절음'이다. 학장인 김성동(달마문예대학 고문) 씨가 환영사를 잊지만 조리 있게 말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자 사회를 보는 서동석 법사가 둘러친다. "김성동 선생님은 극치를 한한 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극치를 먼저 대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 모두 진지한 모습들이다.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이한중(64) 시인은 '비유기 위해 배우려 왔다'고 설명한다.

신경림(달마문예대학 고문) 씨가 '우리생활과 문학'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한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주지 미명 스님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문화적 욕구에 목말라있지만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부족해서 찰에서 문예대학을 마련했다"며 "중·고급과정부터는 강사진에도 변화를 줘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 Templestay 운영사찰 접수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Templestay)은 산사체험 및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할 뜻이 있는 사찰을 지정 운영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 받고자 공고합니다.

- 템플스테이 운영 지정 사찰
 1. 지정사찰이란 :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널리 알려진 템플스테이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사찰을 지정하고 지정된 운영사찰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자료 및 인력, 운영자 연수,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2. 신청사찰 요건 : 산사체험 및 수련회 기실시 사찰 (기반 시설 구비) 산사체험 및 수련회 상시 또는 정기 운영 역량이 있는 사찰 프로그램 운영자(스님) 및 운영 보조인력이 있는 사찰
- 제출서류
 - 기존 운영 현황 1부 양식 1 - 기 실시 운영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특징 및 운영 기록 자료 첨부)
 - 운영 계획서 1부 양식 2 - 사찰현황표 및 운영계획서
 - 기타자료
 - 사찰 홍보물 일체, 사찰 조감도 및 건물 배치도 각 1부씩, 사진 (사찰전경사진, 내부 사진, 프로그램 운영장소별 사진, 숙소공간별 사진, 화장실 및 샤워실, 기타 경내 편의시설)
 - ※ 양식은 www.buddhism.or.kr, www.ibuddhism.org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정 절차

공고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사찰실사 → 사찰선정
- 접수기간 : 2004년 4월 6일(화)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1층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
ts2002@buddhism.or.kr 02)732-9925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 Templestay 사업 개요

1. 사업 방향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널리 알려진 템플스테이사업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첫째, 금년(2004년) 템플스테이 사업단 출범과 운영사찰을 지정하며, 둘째, 불자 및 국민대중의 다양한 전통불교문화체험과 선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국내 거주 및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의 확산과 인지도를 높인다.
2. 기대 효과
 - 불자 및 국민대중의 참신 수행을 통한 심성개발
 - 한국 전통 문화 및 한국 불교 홍보를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한국전통 체험문화 콘텐츠 개발과 체험관광문화 활성화 기여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일반시민의 전통사찰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 여가문화 창달성도
 - 종단 중무기관 및 사찰의 내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량 구축
3. 사업배경
 - '02월드컵, '03유니버시아드대회 시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한 한국불교 인지도 제고와 세계적인 수행문화기 고조에 따른 불교 역할 기대감 상승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성숙된 국민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전통문화(사찰) 탐방기회 증가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전통사찰'을 한국 고유문화 상품으로 개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의 적극적인 대응
4. 주요 사업 영역
 - 사업단 (사무국)
 - 템플스테이 장기적 운영 계획수립과 추진
 - 홍보, 예약 시스템 구축 및 가동
 - 운영사찰 지원 및 관리(프로그램, 인력, 자료 등 지원)
 - 사업단 물적, 인적 토대 구축 (예산수급, 자원활동가 인력, 자료 발간 등)
 - 정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정 운영사찰 :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널리 알려진 템플스테이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사찰을 지정하고 지정된 운영사찰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자료 및 인력, 운영자 연수, 홍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은 다음의 원칙이 요구됩니다.
 - 첫째, 프로그램운영 및 참가자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적인 운영 인력
 - 둘째, 사업단과 긴밀한 협조속에 각종 정보공유와 현황보고
 - 셋째,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역할

2004. 3. 12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 사업단장